#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 본질을 일깨워주고 절망할 때 격려해주는 것이 CAL-Net의 역할

**만약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아마도 각 교회는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강원도** 강릉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의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도시이다. 그런데 강릉 시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힘을 합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몰려든 재난복구 지원팀들은 힘을 합쳐서 물에 잠긴 도시를 복구했고,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수천 명의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강릉은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속도로 태풍 피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연합의 힘은 태풍 피해 극복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아마도 각 교회는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모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도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함께 준비하면 더 쉽다"는 사실을 체험한 감리교 강릉지방회 소속 10여 명의 목회자들의 제자훈련 준비 이야기를 들어보자.

### "관심이 있으면 모입니다"

강릉지방회 소속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으로 통하는 김영민 목사(강남교회 담임). 그는 46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칼세미나)에 다녀온 후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제자훈련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본질"이라며 "목사님도 빨리 제자훈련을 시작하라"고 열변을 토한다. 김 목사가 이처럼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다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제자훈련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 목회철학이자 목회의 본질이라는 그의 확신 때문이고, 둘째는 같은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도 이 좋은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김 목사의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 강릉지방회에 속한 동료 목회자들은 "정히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2001년 6월, '제자훈련세미나'라는 명칭으로 그들은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김 목사는 "우선 감리교가 갖고 있는 지방회 조직의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즉, 강릉지방회의 경우 목회자들끼리 서로 호형호제하며 매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모임을 갖기가 쉬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임에 처음부터 참석했던 김 현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공교롭게도 참석자들 모두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김영민 목사님보다 먼저 칼세미나에 다녀와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

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1기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도대체 뭣 때문에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했고, 우선 몇몇 친한 목회자들끼리 모여 김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에 대해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석 목사

## "초보끼리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에 열 명 남짓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다들 출석 교인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 담임목사들이었다. 김영민 목사 자신도 8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그러다보니 서로가 가진 문제나 관심분야가 비슷했다. 심지어 '제자훈련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프로그램' 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것까지 똑같았다.

김 목사는 우선 옥한흠 목사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를 가지고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며, 그렇기에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적 목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그때를 돌아보며, "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지만, 같이 배운다는 마음에서 그 모임을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김 목사에게는 비록 제자훈련의 경험은 없었지만, 제자훈련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경적 목회철학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현 목사

공부할 내용은 주로 김 목사가 선정했다. 국제제자훈련원 스태프와의 전화연락을 통해 코치를 받으면서 모임을 준비했다.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가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더더욱 이 모임을 준비하는 데 열심을 냈다. 그러다보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새가족 모임과 정착 프로그램, 양육체계에 대한 세미나도 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비록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자기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임목회자가 준비한 세미나였기에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목회자들끼리 공부하는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단순히 제자훈련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리더십이나 귀납적 성경공부에 대해서도 배웠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만큼 모임에 대한 이들의 마음도 점점 깊어졌다.

##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됩시다!"

제자훈련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이들이 하나 둘 칼세미나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칼세미나에 다녀오라"는 김 목사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에게는 강남교회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참석을 독려했다. 김 목사는 '일단 칼세미나만 다녀오면 목회 마인드가 바뀔 것' 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성중현 목사(만민의교회 담임)는 2002년 3월, 칼세미나에 다녀오더니 이렇게 제안했다.

"알고 보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귀납적 성경공부나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모임을 아예 제자훈련 받는 시간으로 합시다.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봅시다."

성 목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김영민 목사 자신이었다. 정작 이 모임을 시작한 자신은 제자훈련에 대해 설명하려고만 했지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못했던 것이다. 김 목사는 그제야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못한 이들이 제자훈련을 시켜봐야 그것은 반쪽짜리 제자훈련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제자훈련 교재 1권을 진행하면서 이들은 제자훈련의 힘이 무엇인지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1과만 마쳤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저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모였던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목회의 본질로 바뀐 것이다.

## 초점이 바뀌는 경험

사실, 그 모임에는 이미 제자훈련을 시도해본 목회자가 여럿 있었다. 그러나 모두 소형 교회인 데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함으로써 실패를 맛보았다.

43기 칼세미나를 수료한 김 현 목사는 강릉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기만 끝나면 지역을 떠나버리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나름대로 감동을 줘서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작정했지만 "우리는 곧 떠날 사람들인데 그렇게 힘들게까지 훈련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학생들의 반응에 결국 제자훈련을 포기해야만 했다. 게다가 나머지 교인이라곤 60이 넘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인 교회 상황에서 김 목사는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그의 최대 관심은 '이런 목회 환경의 돌파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인가' 였다.

평소 성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정의석 목사(초당감리교회 담임). 그는 2001년에 50기 칼세미나에 다녀온 뒤, 곧바로 2002년부터 제자반 1기를 시작했다. 나름대로 1기는 그럭저럭 잘 마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훈련생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돈 문제 앞에 시어이없이 무너지는 한 훈련생을 보면서, 정 목사는 과연 자신이 제대로 제자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심지어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는 1기 수료생 출신 집사들이 오히려 자신의 뜻에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1기조차 제대로 제자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제자훈련 때문에 17년 목회 경력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고민 없이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실감한 것이다. 제자훈련이 제 효과를 나타내려면 목회자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

임용남 목사

김영민 목사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훈련을 준비하던 이들의 연합은 큰 힘이 되었다.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데뿐 아니라 강릉지역의 피해 복구에도 힘을 모은 것이다. 전 교회가 함께 모여 매일 수천 명에게 밥을 제공했다.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교회들을 정리하는 데에도 함께 뛰어들었다. 피해는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피부로 체험했다.

제자훈련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소형

"아무리 칼세미나를 다녀와도 혼자 있으면 감동이 곧 식어버리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계속 자극하니까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참석자들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목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이나 양육체계, 리더십, 귀납적 성경공부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 공부할 때마다 '이것을 실시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직접 해보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자세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자훈련은 어떠한 자료나 프로그램, 기술에 의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목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나 돌파구를 얻으려는 마음에 모임에 참석했다면, 지금은 제자훈련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이게 된 것이다. 이것저것 자료를 구하던 요청의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강릉지역에 맞는 제자훈련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는 자세로 바뀌었다.

##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제자훈련 교재 1권이 끝나갈 무렵, 태풍 '매미'가 찾아왔다. 2002년에도 태풍 '루사'로 인해 한동안 모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강릉에 발생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눈앞에 두고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것은 이들의 눈에 한가로운 것이었다. 게다가 모임에 참석하던 한 목회자의 교회는 물에 잠겨 모든 것이 물과 함께 쓸려나가 버렸다.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잃어

교회를 담임하기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을 담임목사가 혼자 처리해야 한다. 새벽예배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부터 저녁예배까지, 심지어 구역모임의 공과까지 혼자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 심방과 각종 모임도 너무나 많다. 부교역자 때문에 고민이라는 동료 목회자의 하소연은 부잣집 맏아들의 푸념처럼 들린다. 이처럼 담임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제자훈련을 준비할 시간을 꾸준히 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준비를 하려 해도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함께 준비함으로써 새가족 정착과 양육체계, 리더십, 귀납적 성경공부 인도법 등 제자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사역들도 잘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얻은 큰 수확은 외로운 목회의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도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면 자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만큼 현장은 냉혹하지요.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로부터 새로운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목사도 김 현 목사의 생각에 동의한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를 준비하고 서로를 격려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있다보니 모이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더군요. 소형 교회 담임목사 한 명만 놓고 보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런 목회자가 열 명이 모이니까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아무리 칼세미나를 다녀와도 혼자 있으면 감동이 곧 식어버리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계속 자극하니까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이런 소망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요즘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타 교단 목회자들이 '나도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며 전화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열악한 목회 현장에서 외롭게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을 많은 목회자들에게 김 목사는 이렇게 권면한다.

"두 명이 함께 모이면 두 배 이상의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지요. 마음이 맞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함께 준비해보세요.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평생 목회 현장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김 목사의 말은, 네트워킹 사역을 강조하는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더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사실 제자훈련 동역자들을 각 지역별로 묶어둔 '제자훈련 동역자 네트워크'(CAL-Net)가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불과 네다섯 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된 강릉지역 목회자들의 모습이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

〈박순종 목사〉